

開港以後 大邱地域 近代住居建築에 관한 研究*

尹在雄

(효성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I. 序論

1. 研究의 背景과 目的

韓國 近代住居建築은 자주적인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의 타율적인 이식이라는 대단히 제약된 시각에서만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들 住居建築은 住居史의 價値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파괴되고 關聯資料들은 점차 散失되어가고 있으며, 韓國 近代住居史의 研究成果 또한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들 住居들이 비릇 바람직하지 못한 출발과 경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住居文化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하나의 造形物로서 韓國 住居史研究의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 시대의 住居에 대한 보다 體系의이고 客觀的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住居史의 체계화는 그 역사를 구성하는 個個建物の 建立時期, 構造, 規模, 設計者 및 建立背景 등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서 비롯되며, 체계

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인식은 類型別, 時期別, 地域別 調査에 의해 수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研究는 大邱地域 近代住居를 대상으로 實測調査하여 정리하고, 이들 住居의 形成過程과 流入主體別, 時期別 特性 및 變遷樣相을 住居史的 側面에서 파악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이 研究는 1886-1945년까지 大邱地域(慶山, 慶州, 浦項, 尙州, 倭館 等 包含)에 建築된 住居 建築物로서 現存하는 모든 住居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對象住居의 선정에 있어서는 近年에 철거된 것이라도 설계도(또는 實測圖)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켰으나, 現存 住居라도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研究의 進行方法은 각종 文獻(舊 登記簿謄本 包含), 探問, 現場調査 등의 方法으로 住居의 所在를 파악한후 實測調査하여 資料를 수집하고 이들 資料를 流入主體別, 類型別로 정리하여 住居建築

* 이 論文은 1991년도 教育部支援 韓國學術振興財團의 地方大學 育成課題 學術研究造成費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時期別 特性과 變遷樣相을 分析, 考察하는 方法으로 進行하였다.

實測調査는 1991년 10월부터 1992년 6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住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1) 建築時期 2) 實測圖 3) 사진촬영 4) 변형 및 보존상태 등에 대한 資料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이번 調査에서 확인된 大邱地域 近代住居는 이미 철거된 住宅을 포함하여 41個 었다. 이들 相關資料가 남아 있지 않거나 現存 住居라도 原型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研究資料로서 불충분한 9個는 제외하고 32個 住居에 대해서만 實測調査하여 資料로 사용하였다.

II. 近代 住居의 背景과 時期區分

1. 地理的 背景

大邱는 한반도의 동남부 영남내륙의 중심에 위치하며 4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盆地地形 都市이다.¹⁾ 大邱盆地는 서쪽의 낙동강 中流로 합류하는 금호강과 그 支流인 新川流域의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서쪽으로는 낙동강의 沖積平야와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大邱는 1419년(세종원년)에 大邱郡으로 승격되었고 1591년에는 慶尙道 觀察使營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의 행정, 군사 중심도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大邱는 군사, 교통의 요지로 定期市場이 開設되는 朝鮮굴지의 대도읍으로 發展하였으며, 개화기 이후에는 日帝의 朝鮮經濟侵略을 위한 據點地가 되었다.²⁾

2. 人文·社會的 背景

(1) 基督教의 傳來 및 受容

大邱의 기독교는 1827년경부터 傳來되기 시작하였으나³⁾ 1890년대에 들어와서야 완전한 교회로

시기 구분	유입 주체	건물명	소재	건축 연대	현존 유무	자료구분
I 기	천주교	성모 성당 사제관	대구	1899	무	문헌, 사진
	개신교	Adams 주택	대구	1901	무	기존자료
		Johnson 주택	대구	1901	무	실측
		Erdman 주택	대구	1908	무	실측
		Switzer 주택	대구	1908	유	실측
		Mcfarland 주택	대구	1908	무	실측
		Reiner 주택	대구	1908	유	실측
Blair 주택	대구	1910	유	실측		
일본인	노동자 숙소	대구	1910	유	실측	
II 기	천주교	코미넛관	대구	1915	유	실측
		낙산 성당	왜관	1922	유	실측
	개신교	Wangerin 주택	경산	1911	유	실측
		이 시화 주택	경산	1915	유	실측
		Fletcher 주택	대구	1915	무	문헌, 사진
	일본인	경북 도지사 관사	대구	1920	유	실측
		대구 부윤사택	대구	1934	무	실측
전매청 사택		대구	1924	무	실측	
성진 지업사		대구	1925	유	실측	
한우스텐 상사		대구	1925	유	실측	
III 기	천주교	계산성당 사제관	대구	1929	유	실측
		왜관성당 사제관	왜관	1929	유	실측
		하양성당 사제관	하양	1930	유	실측
	개신교	영남신학교 기숙사	대구	1933	무	실측
	일본인	김 용규 주택	대구	1931	유	실측
		경주 검찰청 관사	경주	1931	유	실측
		포항 농협 관사	포항	1933	유	실측
		대구 육군 관사	대구	1933	무	실측
		상주 철공소	상주	1934	유	실측
		광명 페인트사	대구	1934	유	실측
		경주 철도 관사	경주	1936	유	실측
	한국인	정소아과 의원	대구	1937	유	실측
문 응갱 주택		대구	1937	유	실측	

표 I-1 조사대상 건물

서 출발하게 되었다. 1886년 大邱에는 천주교 본당이 설치되고 초대 주임사제로 A. P. Robert 신부가 부임해왔다.⁴⁾ 그러나 그때까지도 천주교는

1) 洪 慶姬: 대구 도시 지리학 연구, 대구시, 1966.
 2) 田村一久: 郷土地理의 實例, 大邱府, 昭和 8년.
 3) 慶尙北道史 編輯委員會: 慶尙北道史, 中卷, pp. 1206-

1207.
 4) 大邱 大教區史編輯委員會: 大邱本堂 百年史, 1988. pp. 199-200.

大邱의 社會·文化에 마찰과 충격을 가져오게 되어 Robert 신부는 大邱近郊의 隱居地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후 Robert 신부는 국가로부터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게되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 好轉되어 감에따라 現 桂山洞에 선교거점을 구축하여 완전한 교회로의 출발을 하였다. 또한 改新教에서는 1893년 各國 長老 教派間의 宣敎區域이 劃定됨에 따라 그해 釜山에 있던 宣敎本部를 大邱 南城路의 信徒 私家로 옮겨와 南城路和 銅山(現 東山洞)의 一廓을 宣敎 據點으로 확보하였다.⁵⁾

그후 大邱의 基督教은 韓·日合邦(1910)後 日帝의 植民統治에도 불구하고 信者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급진적인 發展을 하였다.

1919年 3.1運動後에는 民族運動이 文化, 社會運動을 지향하게되고 우리 民族 사이에서는 新敎育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그와 관련된 基督教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됨에따라 敎勢가 크게 확장되어갔다. 그러나 1930年代부터는 日帝가 大陸侵略을 넘어 제2차대전으로까지 확대해가고 基督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宣敎事業은 점차 침체하게 되었다.

(2) 日本의 經濟侵略과 植民統治

開港(1876) 이후 日本은 各 開港場과 서울을 비롯한 全國 主要都市에 그들의 經濟的 勢力을 침투시키기 시작하였다.⁶⁾

大邱에 日本人들이 들어와 商業活動을 시작한것은 1893년부터 였으나, 이들이 본격적으로 移住해 오기 시작한 것은 大邱가 商業上의 立地로 適切지라는 정보와 더불어 京釜線 鐵道敷設工事が 착공(1903)되면서 부터였다.⁷⁾ 그후 1905년에 들어와서 부터는 京釜線 鐵道가 개통되고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는 것을 계기로 大邱에는 日本人들의 移住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日帝는 그들의 居留地 保護와 植民地 前哨基地

의 마련을 위해 統監府 理事廳을 設置하고 日本人들에게 定着資金을 지원하는 한편 徵收機構의 改編과 貨幣制 定理에 이어 大邱 城廓을 철거하였다.

1910년 합방이후 日帝는 工業基盤이 약한 大邱를 商品의 流通據點으로 정하고, 日本 消費商品의 流通基地로서 뿐만아니라 背後地에서 生産되는 農産物을 集散시키는 商業都市로 지배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30年代에는 大邱의 商圈이 慶尙北道는 물론 멀리 他 地域으로까지 확대되어 開港場을 제외한 서울, 평양 다음의 貿易額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1937年 이후에는 鐵鋼, 纖維를 中心으로한 工業도 급진적인 發展을 보였다. 그러나 1939年 이후부터는 제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모든 국력이 전쟁에 모아짐으로써 經濟活動이 점차 침체되었다.

(3) 流入主體의 建築的 思考

開化期 이후 大邱地域에 유입·형성된 近代住居는 歐美人 宣敎師들이 지은 宣敎師주택과 日本人들의 商街住宅, 官舍 그리고 기타 韓國人들의 살림집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住宅들은 당시의 人文, 社會的 環境으로서의 政治, 經濟的 構造의 變化, 流入主體들의 建築的 思考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 流入主體들의 建築的 思考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歐美人 宣敎師 —— 大邱에 들어온 기독교 建築의 流入主體는 천주교 제통의 프랑스신부(파리 外邦 傳敎會)와 改新敎의 美國人 宣敎師들로서 이들은 각기 다른 宣敎理念과 建築的 思考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천주교는 그들의 宣敎活動을 敎理中心 즉 개인보다 地域的 교회체제의 構築에 됨으로써 建築的 思考도 기독교적 미론에 입각한 통일성에 두고 있었고, 개신교에서는 그들의 宣敎 政策上 교회를 그 지방 신자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함에 따라 이들의 建築的 思考는 現地 環境과의 調和, 適應에 두게 되었다.

② 日本人 —— 日本人들에 의한 大邱의 近代住居建築은 1905년 乙巳保護條約 以後 부터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지어진 住宅들의 대부분

5) 이 상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1983, p. 63.

6) 한 우근; 한국 개항기의 상업연구, 일조각, 1985, p. 233.

7) 대구시; 대구시사, 2권, 1973, p. 53.

은 日帝가 大邱를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流入·形成되었다. 日帝의 植民地 統治理念은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經濟收奪體制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建築的 思考는 우리 住居文化에 固有性을 말살하고 日本 住居文化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4) 외국인 기술자의 到來와 新材料의 使用

開港 이후 朝鮮의 전통적인 建築 生産體制는 서서히 解體되어 갔다. 그리하여 개화기 이후 大邱에 유입된 洋式建築도 훈련된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두 외국인 기사들⁸⁾에 의해 設計·監督되었다.

大邱地域 基督教 系統의 建築은 프랑스 신부들과 美國 宣教師들이 주로 設計·監督하고, 중국인 건축 기술자들⁹⁾과 日本人 木手들이 공사를 담당하였다. 중국인 기술자들과 日本人 木手들이 처음 大邱에 온 것은 1901년 이었으며, 이들중 중국인 기술자들은 1902년경 대부분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중 일부가 남아 日本人 木手들과 함께 建築活動을 하였다.

그후 1913년에는 大邱教區의 敎區長 Demange 主教의 주선으로 中國 山東省 출신의 建築技術者들¹⁰⁾이 왔다. 이들 中國人 技術者들은 이때부터 基督教 建築의 대부분을 맡아 시공하였고, 1930년대초 부터는 “雙興號”라는 建築施工業體를 設立하여 많은 工事に 참여하였다.¹¹⁾

日本人들의 建築은 대부분 총독부 산하 영선과 건축계 소속의 日本人 技術者들에 의해 지어 졌으

며, 시공은 1910년대 중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日本人 민간건설업자들이 담당하였다.

大邱의 住居에 벽돌을 포함한 近代의 材料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1년부터 였다. 당시 벽돌은 中國人들에 의해 製作·사용되었으며, 유리·철·각종 위생난방시설등은 美國,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직접 가져와 사용하였다. 大邱에서 벽돌(적벽돌)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01년부터였으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대부분의 建築工事に 벽돌이 供給되었고 1920년대 말부터는 철근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 時期區分

大邱地域에 流入, 形成된 近代 住居는 流入經路가 일관성을 가진것이 아니었고 流入自體도 대부분 非專門家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時期別로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大邱地域 近代住居史의 이해와 각 단계별 특성 파악을 위해 앞서 살펴본 大邱地域 近代住居의 背景과 調査建物の 類型, 先行研究에서의 時期區分¹²⁾ 등을 참고하여 大邱地域 近代住居의 發展過程을 區分하고자 한다. 우선 大邱地域 近代住居史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史의事實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歐美 宗教人의 來邱(1886)와 大邱 日本 居留民團의 設置(1905)

② 大邱府制의 실시와 日帝의 식민통치기반조성(1910-1920년대 중반)

③ 日本 商業資本의 流入과 經濟收奪政策의 強化(1920년대 중반이후)

이상의 內容을 종합하여 本稿에서는 第1期(胎動期, 1886-1910), 第2期(形成期, 1911-1926), 第3期(發展期, 1927-1945)로 區分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歷史的 事件의 선택과 時期區分은 주관적이며 앞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前提한다.

8) 대구의 건축활동에 참여한 외국인인 Robert, Poisnel, Vermorel 등의 프랑스인 신부와 Adams, Johnson, Henderson, Reiner 등의 미국인 선교사 그리고 白井, 笹慶一, 中村興資平, 封塚八次郎, 隅川 등의 일본인들이 있었다.

9) 당시 대구에 온 중국인 기술자는 서울 명동 성당건축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벽돌공 9명, 석공 14명, 목수 3명 등 총 26명에 요리사 2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資料:大邱 大敎區史 編纂委員會, 大邱本堂 百年史)

10) 이들은 천주교의 북경관에서 파견한 중국인들로 姜義寬, 慕文錦, 隋恒錄 등이다.

11) 尹 光宣씨 증언(75세. 현 대구교구청 자료실 근무)

12) 尹 在雄;大邱地域 近代建築에 관한 研究, 嶺南大, 博論, 1991, pp. 66-99.

Ⅲ. 近代住居의 流入과 形成過程

1. 第1期, 胎動期 (1886-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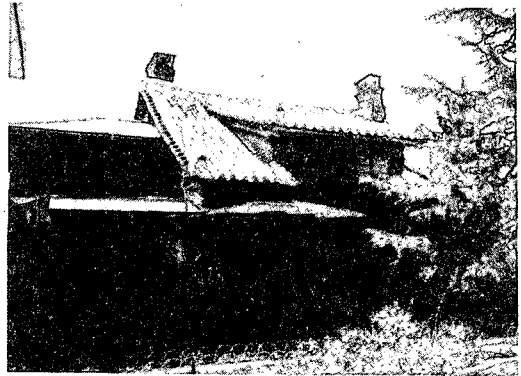
第1期는 流入主體에 따른 住居類型이 胎動하는 時期이다. 1886년 韓·佛修好條約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大邱에는 天主教 本堂이 設立되고 이어 개신교의 선교본부가 大邱로 옮겨 오며 따라 歐美人 宣教師들(프랑스인 신부, 美國人 宣教師)이 들어와 宣敎活動을 시작하였다. 또한 1903년 부터는 京釜線 鐵道敷設工事が 着工되고 乙巳保護條約의 締結과 함께 大邱 日本理事廳이 設立되면서 다수의 日本人들이 몰려와 식민지 基盤構築을 위한 諸般 建設事業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大邱에는 歐美人 宣教師들의 住宅이 城 밖의 桂山洞과 東山洞 一帶에 形成되는 한편 日本人들의 商店과 住宅들은 城 밖의 大邱驛 부근과 남문밖 도로변을 따라 形成되었다. 그러나 大邱城廓이 철거(1909년 12월)된 이후 부터 日本人들은 점차 韓國인들의 居住중심지인 城内部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 時期 이들 流入主體에 의해 建立된 住宅은 대체로 韓·洋折衷型, colonial 樣式에 根源을 둔 Bunglaw風, 日·洋折衷型 등으로 區分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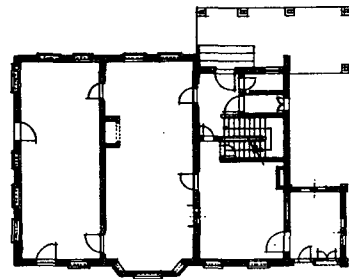
(1) 韓·洋折衷型 住居

韓·洋折衷型은 大邱地域에 宣敎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時期에 歐美的 宗教人들이 지은 大邱 最初의 近代住居類型이다. 이들 住居는 流入主體에 따라 構造, 樣式面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프랑스인 신부의 사제관은 西歐式 平面에 韓國 傳統樣式的 外觀을 構成하였고, 개신교의 宣敎師 집은 西歐式 平面과 構造體에 지붕만을 한식기와 지붕형으로 꾸몄다. 이들 중 天主教의 신부 사제관은 火災로 消失되고 당시의 사진만이 전해오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宣敎師들의 집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필자 실측 후 3棟 철거)

이 類型的 宣敎師집들은 모두 붉은 벽돌조 2층으로 설계는 美國人 宣敎師들이 직접했고, 建築工



사진Ⅲ-1 Erdman 주택



그림Ⅲ-1 Erdman 주택 1층평면도

事は 1901년 봄에 계산성당 建築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중국인 벽돌공과 부산에서 온 日本人 木手들이 담당하였다. 平面은 대부분 方型으로 1층에는 목조 배란다와 이어지는 현관을 통하여 거실, 부엌, 식당등이 연결되고, 2층에는 계단홀을 중심으로 침실, 서재, Sun Room 등이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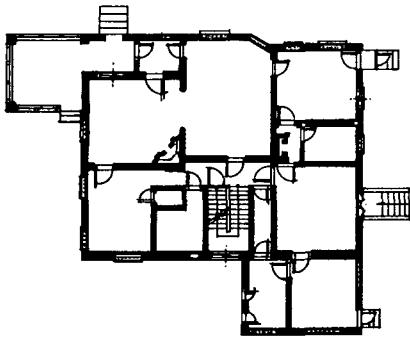
外觀은 안산암 또는 화강석을 바른층쌓기한 줄기초 위에 붉은벽돌을 美式쌓기 하고, 層間은 cornice를 두어 장식하였다. 창문은 결원 아치형으로 構成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設置하였으며, 지붕은 박공형에 한식기와를 이었는데 지붕위에 shed형 창과 굴뚝이 돌출해있다.

(2) Colonial 樣式에 根源을 둔 Bunglaw風의 住居

선교 초기 歐美人 宣敎師들은 韓·洋折衷型的 住居와 더불어 Colonial 樣式에 근원을 둔 Bu-



사진Ⅲ-2 Mcfarland 주택



그림Ⅲ-2 Mcfarland 주택 1층평면도

nglaw風의 住宅을 지었다. Bungalow風의 住居로는 Adams주택(1901), Mcfarland주택(1908), Reiner주택(1908), Blair 주택(1908)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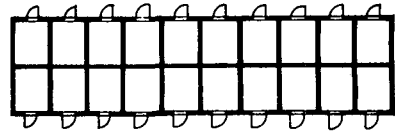
이 類型은 개신교의 美國人 宣敎師들이 1910년경 大邱 東山洞에 지은 집들로 基礎를 콘크리트로 하고, 지붕을 평활한 bungalow風으로 構成하여 석면슬레이트를 이은 것 외에는 韓·洋折衷式과 거의 같다.

(3) 日·洋 折衷型

日本人들이 지은 住居는 노동자 숙소, 상점 병용주택¹³⁾ 등으로서 構造는 木造에 흙벽이나 판자벽으로하여 합석을 이은 정도¹⁴⁾였을 것으로 보인다.

13) 도로변에 점포, 후면에 거주 혹은 1층에 점포, 2층에 거주부분을 둔 주택.

14) 1905년 대구 역전에는 초가인 철도원의 주택이 있었고 사면은 풀이 무성한가운데 우뚝 솟은 양철지붕의



그림Ⅲ-3 노동자 숙소 평면도

노동자 숙소는 長屋型으로 당시 日帝가 大邱驛 舍 建築에 동원한 韓國人 일반노동자들을 위해 지은 집이며, 3棟을 남북으로 길게 配置하였다. 各棟은 前後面에 各各10칸씩 20個의 방으로 構成하였으며, 방한칸마다 아궁이가 設置되어있고 굴뚝은 各棟에 4個씩 세워 5家口씩 連結하였다.

外觀은 나무기둥사이에 대나무외를 엮어대고 진흙으로 벽체를 構成하였으며, 지붕은 日式기와를 이었다.

2. 近代住居의 形成期(1911-1926)

합방후 大邱의 日本人들은 府內 幹線道路를 그들의 계획대로 정리한후 한국인들의 거주중심지인 舊, 城廓内部로 밀고들어와 官廳, 學校, 店舖, 住宅 등을 建築해 나갔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朝鮮會社의 철책로 일본자본의 한국진출이 활발해지고, 日帝가 植民地 經濟收奪政策을 강화시켜나감에 따라 大邱驛과 在來市場(西門市場)을 連結하는 주요 도로변에는 住居併用 店舖들이 많이 建築되어 一帶商街를 形成하였으며 특히 北城路는 당시 大邱의 銀座라 불리울만큼 中心街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大邱의 基督教은 韓·日合邦을 계기로 信者數가 증가하면서 敎勢가 확장되어 갔다. 朝鮮敎區에서 분리된 大邱 天主教는 南山洞과 大邱 近郊의 洛山에 새로운 據點을 構築해갔으며, 개신교에서는 東山洞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慶山에 安息敎의 선교본부를 設置하였다.

이 時期 大邱地域에 流入된 住居는 크게 歐美 宗敎人들에 의한 Colonial型과 Georgian型 그리고 日本人들에 의한 日·洋折衷型, 日·洋複合型

唯家旅館과 판자집들이 눈에 띄었으며……(河井朝雄: 大邱의物語, 1931)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Colonial 형의 住居

1910년대에 들어와 어느정도 선교기반이 마련되자 歐美人 宣教師들은 英國, 美國 등지에서 보아오던 田園住宅을 모방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 유형의 주택(이시화, fletcher, Wangerin 주택 등)은 비정형적인 개방 평면에 넓은 베란다를 설치한 것과 박공형 지붕, Shed 창, 그리고 지붕에 굴뚝을 돌출시킨 것 등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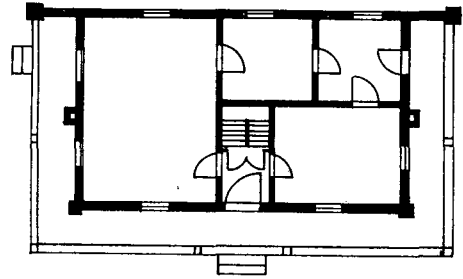
사진Ⅲ-3 이시화 주택

(2) Georgian型的 住居

이 類型은 천주교의 프랑스인 신부들이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의 小都市에서 보아오던 住居型을 모방하여 지은 집이다. 이들 집은 長方型的 단순한 平面에 外觀과 함께 對稱을 이루며, 外觀은 출입구부와 층간, 처마부의 cornice를 제외하고는 장식이 거의 없고, 지붕은 모임 또는 박공형에 domer창과 굴뚝이 부가되어 있다.



사진Ⅲ-4 낙산성당



그림Ⅲ-4 낙산성당사제관 1층 평면도

(3) 日·洋折衷型

木造로 石造나 벽돌조의 洋式建築을 모방한 建物を 말하며 擬洋風이라고도 한다. 이런 類型의 住宅으로는 현, 성진지업사, 한우스텐, 金用奎住宅등이 있다. 商街 密集地域인 太平路의 현, 한우스텐 建物は 1층에 점포, 2층에 居住部分을 配置하였고, 현 성진지업사 建物は 도로에 面하여 점포를, 도로 뒷면에 居住部分을 配置하였다.



사진Ⅲ-5 김용규 주택

(4) 日·洋複合型

日·洋複合型은 日式 住宅의 일부분에 西歐式 空間을 混用한 型으로 慶北 道知事 官舍(1920), 大邱 府尹官舍(1923), 大邱 專賣局 官舍(1924) 등이 있다.

1920년대 초에 지어진 官舍들의 平面構成은 家族의 식사· 단란장소인 가족실을 핵으로 침실을 포함한 家族의 生活空間, 부역· 식모방 등으로 構成된 私的領域과 業務와 관련된 會議, 接客 등



사진 Ⅲ-6 경북도지사 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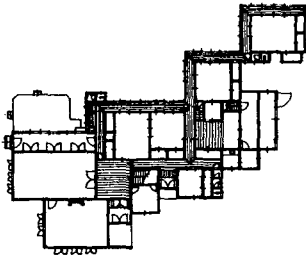


그림 Ⅲ-5 경북도지사관사 평면도

公務를 遂行하는 公的領域으로 區分되어 있다.

이들 관사건물을 構造, 樣式面에서 보면 家族의 日常生活空間이 配置된 私的領域은 木造의 日式이고, 別도의 출입구와 회의실, 사무실, 변소등을 갖추고 있는 公的領域은 붉은벽돌, 몰탈, 유리 등의 近代의 材料 뿐만아니라 아치, 페디먼트 등 洋式建築의 形態要素들을 사용한 西歐式으로 構成되어 있다.

3. 近代住居의 發展期(1927-1945)

1920년대 중반이후 大邱에는 日本人들에게 상업자본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本店을 둔 各 銀行과 금융조합들이 設立되고 日本 分離派 建築運動의 餘波로 빌딩개념이 導入됨에 따라 大邱驛과 西門市場을 연결하는 主要 가로변에는 대규모 백화점과 점포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大邱의 商圈이 慶尙北道 全域으로까지 확대되어 大邱의 인근 中小都市에도 影響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 時期에 지어진 住宅을 流入主體別로 살펴보

면 歐美 宣敎師들에 의한 Georgian型和 日本人의 日·洋折衷型, 近代의 住居 등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1) Georgian型 住宅

이 時期의 Georgian型 住居는 대부분 天主教 系統의 사제관으로 前 時期의 建物과 큰 차이는 없으나, 外觀構成에서 다소 장식이 생략되면서 단정함과 엄격함을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



사진 Ⅲ-7 계산성당 사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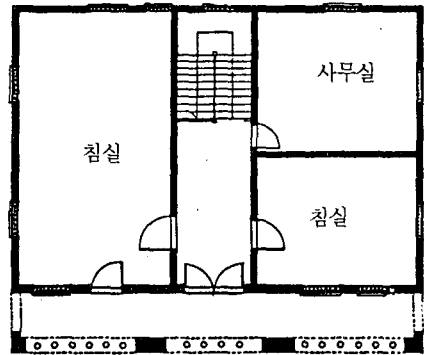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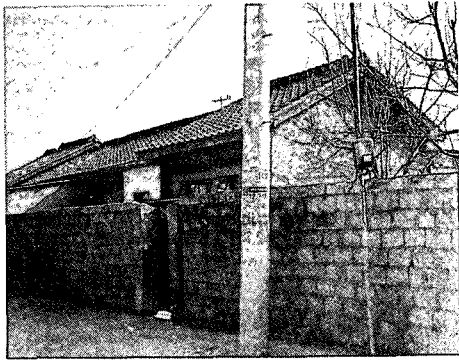


그림 Ⅲ-6 계산성당 사제관 2층 평면도

(2) 日·洋折衷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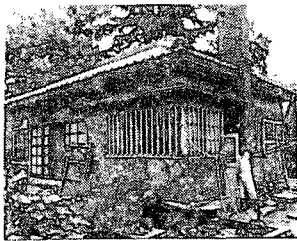
日本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兵站基地化 政策의 추진을 위해 군수산업, 생산력 확충등 主要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住宅建設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 時期 日本人들이 지은 住宅은 대부분 간략화된 日式 木構造로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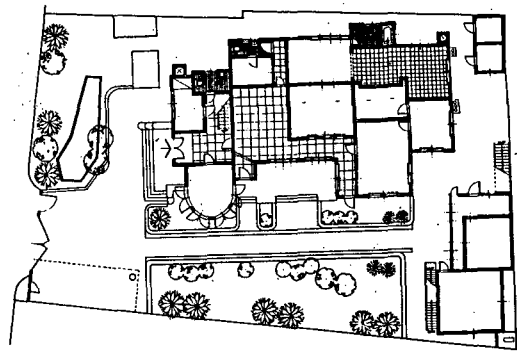
사진Ⅲ-8 경주 철도관사



사진Ⅲ-10 문 응갱씨 주택



사진Ⅲ-9 대구 장교숙소



그림Ⅲ-7 문 응갱씨 주택 1층 평면도

및 기관장의 獨立型 官舍(포항 농협관사, 검찰청, 경주지청장 관사) 軍將校 宿所, 철도 공무원을 위한 聯立官舍(慶州, 尙州 鐵道官舍, 大邱 陸軍官舍), 상업·공업 병용주택(尙州 鐵工所, 광명 페인트) 등이 있다.

이들 住宅을 構造와 材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초는 콘크리트조 줄기조며, 벽체는 나무기둥 사이에 대나무를 엮어대고 시멘트나 흙으로 벽을 치고 다시 철망을 덮어 몰탈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목조 평가로 시멘트 기와를 이었다.

(3) 近代의 住居

1937년에 建築된 문 응갱 주택은 벽돌조 2층에 평지붕을 이은 近代의 建物이다. 平面은 長方型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1층에는 서쪽의 현관홀을 중심으로 계단실, 거실, 부엌, 식당, 욕실, 변소등의 公的空間을, 2층에는 침실, 서재, 아뜨리에 등의 私的空間을 배치하였으며, 외관구성은 평지붕의 사용과 더불어 壁面의 각종 裝飾이 생략되어 단순한 形態를 보이며, 壁面의 一部를 曲面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Ⅳ. 大邱地域 近代住居의 特性

大邱地域의 近代住居는 주로 歐美의 宗教人(천주교, 개신교)과 日本人들을 통하여 流入·形成되었다.

이들중 歐美의 宗教人들은 宣敎뿐만아니라 의료사업, 교육사업, 자선사업등의 간접 선교활동을 통해 교회와 大邱地域 文化 發展에 이바지하였고, 일본인들은 大邱를 植民地 經濟收奪을 위한 商業都市로 變貌시켜나갔다. 따라서 이들 流入主體들의 建築理念과 時代精神, 文化的 背景등이 大邱地域 近代住居의 類型 決定에 주요한 因子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本章에서는 調査對象 住居를 流入主體別, 時期別로 나누어 여러 類型으로 分類하고 統計的方法을 통해 特性을 把握하고자 한다.

구분 시기 유입주체	구조		외장재료							평면				외관구성 및 유형																													
	목조	목골	기초	벽체			지붕				형태		형식		출입구형		아치		지붕		유형																						
	적	골	석리트	회벽	흙벽	관벽	목돌	한식기	슬레이트	합기석	슬라브	장방형	정방형	기둥형	부속형	중점형	홀식지붕	모임지붕	캐노피	아케이드	결원	기둥	합박	모임	모임+세	평지붕	한양	조지안	일양	일양	근대												
천주교	I	1	-	1	-	-	-	1	-	-	1	-	-	-	1	-	-	-	-	1	-	1	-	-	-	-	1	-	-	-	-	-											
	II	2	-	1	-	-	1	-	-	2	-	1	-	1	-	1	-	1	-	1	-	2	-	-	-	2	-	-	2	-	-												
	III	3	-	1	2	-	-	3	-	-	3	-	1	2	-	2	-	1	-	2	1	-	2	1	-	-	3	-	-	3	-	-											
계	1	5	-	3	3	1	-	1	4	-	1	5	-	3	2	-	1	2	2	2	-	1	2	2	1	4	1	1	1	-	5	-	1	5	-								
개신교	I	7	-	5	2	-	-	7	-	2	3	2	-	6	-	1	-	-	7	2	2	-	2	2	-	2	1	6	1	1	-	7	-	3	4	-							
	II	1	2	-	2	1	-	-	1	2	-	-	-	3	-	-	-	3	-	1	2	-	2	1	1	-	2	-	1	-	3	-	-	-	-								
	III	1	-	1	-	-	-	1	-	1	-	-	-	1	-	-	-	1	-	1	-	1	1	-	-	1	-	1	-	1	-	-	-	-	-								
계	1	10	-	8	3	-	-	1	10	-	2	5	4	-	7	-	4	-	1	10	2	2	2	1	4	-	2	8	3	3	-	2	7	2	-	3	8	-					
일본인	I	1	-	1	-	1	-	-	-	-	1	-	1	-	3	-	1	-	1	-	-	1	1	-	1	-	-	-	-	-	-	-	-	-	1	-							
	II	4	-	1	-	5	-	1	-	4	-	-	5	-	2	-	-	1	3	-	2	-	-	5	-	-	5	5	-	5	-	-	-	-	3	2	-						
	III	3	1	3	-	7	-	-	7	-	-	7	-	5	-	1	-	-	1	6	-	-	7	-	-	7	7	-	7	-	7	-	-	-	3	-							
계	8	1	4	1	12	-	1	1	-	11	-	-	13	-	8	-	1	-	4	3	1	9	-	-	13	-	-	13	13	-	1	12	-	-	-	-	6	9					
한국인	III	2	-	2	-	-	-	2	-	-	2	-	1	-	-	1	-	2	-	2	-	2	-	-	2	-	2	-	1	-	1	-	-	-	1	2							
총계	10	18	4	12	20	1	1	3	14	13	3	5	9	15	-	19	2	5	1	5	6	3	23	2	3	1	21	2	3	12	19	1	1	15	7	7	1	4	8	5	6	9	2

표 IV-1 유입주체별 주거유형분포

1. 流入主體別 特性

(1) 歐美 宗教團體의 天主教

조사된 天主教 系統의 住居는 모두 6호였으며, 이들은 신부사제관과 수녀들의 기숙사로 성당 또는 병원, 학교등의 建物들과 이웃하여 建築되었다.

1) 立地-天主教의 住居는 宣敎初期 당시 老人信徒들의 반대로 平地에 지어졌으나 宣敎基盤이 마련되면서 부터는 서양 宗教建築의 傳統에 따라 마을을 내려다 보는 높은 곳에 立地하였다.

2) 構造-宣敎初期인 1890년대 말에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韓國 傳統樣式인 木造로 建築했으나 1900년대 이후부터는 줄곧 벽돌조로 建築하였다. 외장재의 경우 주로 벽체는 붉은벽돌, 지붕은 합석을 사용하였다.

3) 平面構成-獨身の 사제들이 居住하게 됨으로써 公的生活 爲主의 단순한 平面型으로 構成되어 있다. 平面構成은 중세적 影響을 받아 폐쇄적이

며, 建物 中央의 복도 또는 홀을 중심으로 좌·우에 各室을 配置하여 對稱을 이루게 함으로써 단정함을 나타내고 있다.

4) 外觀構成-벽돌조 2층으로 정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對稱을 이루며, 壁面은 장식이 생략된 단순한 構成을 하고 있다. 正面 出入口는 單層 porch형에 지붕을 모임지붕, Canopy, Arcade 형으로 다양하게 꾸몄으며, 지붕은 모임지붕에 domer창과 굴뚝을 附加하였다.

5) 外觀類型-初期에는 韓·洋折衷式이었으나 1900년대 이후부터는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에 Domer창을 부가한 Georgian風이 많다.

(2) 歐美 宗教團體의 개신교

조사된 개신교 團體의 住居는 모두 11호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宣敎師 私宅이다.

1) 立地-宣敎師들의 住宅은 全 時期에 걸쳐 대부분 높은곳에 集中的으로 配置되어 작은 마을을 形成하였다.

2) 構造 및 材料-全 時期에 걸쳐 벽돌 조적조로 一貫하였으며, 材料는 壁體의 경우 붉은벽돌이 줄곧 사용되었고, 지붕은 한식기와, 함석, 슬레이트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3) 平面構成-개신교 계통의 住居는 家族의 共同生活와 宣敎活動을 위한 集會所의 기능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開放的이며, 生活空間은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分化되어 있다. 平面型은 長方型이 많고, 平面構成形式은 대부분 계단홀형이다.

4) 外觀構成-美國人 宣敎師들의 住宅은 대부분 벽돌조 2층으로 지붕의 形態에 따라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區分된다. 하나는 벽돌구조체에 한식기와 지붕을 이은 쥘이고, 나머지 하나는 평활한 슬레이트 지붕에 넓은 처마를 둔 類型이다. 이들 집의 外觀 構成에서 보이는 特徵은 지붕면에 돌출한 shed창과 굴뚝, 벽돌아치창, 내민창, cornice 등이며, 전체적인 면에서는 비대칭구성을 하고 있다.

正面 出入口의 構成은 單層 porch型에 지붕을 한식지붕, 모임지붕, 박공지붕, canopy型등으로 다양하게 꾸몄으며, 지붕은 주로 박공지붕에 shed창과 굴뚝을 附加하였다.

5) 外觀類型-西歐式 構造體에 한식기와 지붕을 채용한 韓·洋折衷型과 비정형적인 平面에 넓은 베란다를 設置하고 박공형 지붕에 shed창과 굴뚝을 돌출시킨 colonial樣式에 根源을 둔 bunglaw 風의 住居가 많이 지어졌다. 이는 敎會用 建物은 構造나 樣式에 있어서 그 지방에 알맞도록 해야한다는 개신교의 宣敎方針과 美國建築의 特性이 反映된 것이라 여겨진다.

(3) 日本人

日本人들의 住居는 모두 13호였으며 이들의 用途別 類型은 獨立型的 개인주택, 관사, 병용주택, 연립형의 사택등으로 다양하다.

1) 立地-日本人들의 住居는 대부분 市街地內的 平地에 넓게 分布되어 있다.

2) 構造 및 材料-構造는 대부분 木造와 木骨造로, 벽체는 나무기둥사이에 대나무를 엮어대고 시멘트나 흙벽을 친다음 몰탈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시멘트 기와의 사용이 많다.

3) 平面構成-平面構成은 全 時期에 걸쳐 長方型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 2기이후의 官舍에서는 부정형 平面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4) 外觀構成 및 類型-日本人들의 住居는 대부분 木造로 석조나 벽돌조의 洋式住居를 모방한 日·洋折衷型과 日式住宅에 西歐式 空間을 부분적으로 채용한 日·洋複合型이었다.

이들 住宅의 外觀구성을 살펴보면 주출입구는 單層 porch型에 지붕을 canopy型으로 하고, 창문은 평아치형, 지붕은 모임 지붕형으로 構成하였다.

(4) 韓國人

조사된 韓國人 住居는 第3期 후반에 지어진 2호뿐으로 모두 大邱府의 중심지(구, 성곽내부)에 建築되었다.

1) 構造 및 材料-벽돌 조적조로 외벽마감은 시멘트 몰탈이고, 지붕은 시멘트 기와와 슬라브 지붕이다.

2) 平面構成-長方型 平面에 모두 현관 홀을 두고 있으며 1층에 公的空間, 2층에는 私的空間을 배치하였다.

3) 外觀構成 및 類型-벽돌조 2층으로 壁面은 수직성과 장식성이 배제되어 단순한 形態를 보이는 近代的 類型이다. 주출입구는 canopy형이고, 창문은 평아치형으로 正方型에 가까우며, 지붕은 모임지붕과 슬라브 지붕으로 構成하였다.

2. 時期別 流入樣相

개화기 이후 大邱地域에 流入·形成된 近代住居는 대부분 歐美의 宗敎人, 日本人들을 통하여 들어왔다. 조사된 住居를 時期別, 流入主體別로 區分하여 보면 표 IV-2에서 보는 바와같이 第1期는 歐美 宗敎團體의 개신교, 第2期 이후 부터는 주로 日本人들에 의해 流入되었으나, 第3期에는 韓國人을 통해서도 一部 流入되었다.

이들 住居를 다시 時期別, 住居 類型別로 살펴보면 192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사택, 관사, 병용주택등이 독립형으로 지어졌으나 1930년대에

용도 시기	독립형			연립형		기숙사	계
	개인주택	관사·사택	병용주택	관사·사택*	병용주택		
1기(1886-1910)	-	8	-	-	-	1	9
2기(1910-1926)	-	7	2	-	-	1	10
3기(1927-1945)	3	6	1	1*	1*	1	13
계	3	21	3	1	1	3	32

* 2-3호 연립의 집단주거임.

단위 :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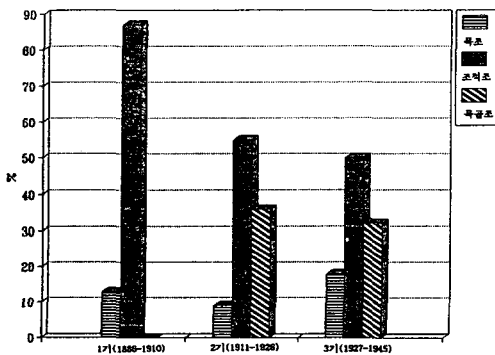
표Ⅳ-2 시기별 용도 유형분포

들어와서 부터는 관사, 사택, 병용주택등이 연립형으로 建築되었다.

3. 住居類型의 變化

(1) 構造 및 材料

大邱地域 近代住居의 構造는 목골조, 조적조, 목조+조적조로 區分되며, 층수는 대부분 1층과 2층으로 되어있다. 構造의 時期別 變化를 보면, 초기에는 대부분 붉은벽돌을 사용한 조적조였으나 第2期부터는 조적조와 더불어 목골조, 목조에 조적조를 혼용한 構造들이 나타났다.



그림Ⅳ-1 구조방식

시기	분류	형 태					계	구 성 형 식				계
		장방형	정방형	ㄷ자형	ㄱ자형	부정형		홀형	중복도형	편복도형	기타	
1기(1886-1910)		89	-	-	11	-	100	89	-	-	11	100
2기(1911-1926)		30	-	10	30	30	100	60	40	-	-	100
3기(1927-1945)		62	15	-	8	15	100	69	23	8	-	100

표Ⅳ-4 시기별 평면형태 및 구성형식 분포율

시기	재료		기 초				벽			지 붕			평 계		
	돌	콘크리트	기	초	외	부	계	한	슬	합	기	평			
			벽	돌	관	기	계 <td>식</td> <td>레이</td> <td>트</td> <td>석</td> <td>와</td> <td>붕</td>	식	레이	트	석	와	붕		
1기(1886-1910)	67	22	11	100	78	-	-	22	100	33	34	22	11	-	100
2기(1911-1926)	60	30	10	100	30	40	30	-	100	-	10	40	50	-	100
3기(1927-1945)	15	85	-	100	31	69	-	-	100	-	8	23	69	-	100

표Ⅳ-3 각 시기별 재료 분포율

各 時期別 사용재료를 보면 第1期에는 기초에 안산암, 화강석등을 사용하고, 외벽은 붉은벽돌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기와, 슬레이트, 함석등을 이었다.

그러나 第2期 부터는 콘크리트 줄기초위에 외벽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는 예가 많아졌다. 지붕재료는 기와와 함석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第3期 후반에는 평지붕도 나타났다.

(2) 平面構成

大邱地域 近代住居建築의 平面形態는 長方型, ㄱ字型, 부정형등으로 分類될 수 있고, 平面構成形式은 홀형, 중복도형, 편복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된 住居의 平面形態를 時期別로 보면 全 時期에 걸쳐 장방형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第2期 이후부터는 ㄱ자형, 부정형등으로 다양해지는 傾向을 보인다.

4. 外觀 構成要素 및 形態類型

(1) 主出入口 形態

住居의 主出入口 形態는 크게 porch형과 후퇴






유형		시기		
		1기 (1989-1910)	2기 (1911-1926)	3기 (1927-1945)
단층	한옥지붕형 	23	-	-
	박공지붕형 	-	10	-
포치	모임지붕형 	22	10	-
	Canopy형 	33	70	85
형	Arcade형 	-	10	8
	후 퇴 형	11	-	7
기 타		11	-	-
계		100	100	100

표 IV-5 시기별 출입구 유형분포율

형으로 分類되었으며, porch型은 다시 그 構成形態에 따라 한옥지붕형, 박공지붕형, 모임지붕형, Canopy형, Arcade형 등으로 區分할 수 있었다.

出入口의 構成形態를 時期別로 보면 第1期에는 porch型의 한옥지붕형, 모임지붕형, Canopy형, 후퇴형 등 다양한 形態로 構成하였으나, 第2期 이후부터 Canopy형으로 一般化되는 傾向을 나타낸다.

(2) 창아치 形態

住居에서 Arch는 出入口의 Porch부, 문, 창문등에 形態的 意味로 취급되어 나타났다. 大邱地域의 住居建築에 나타난 아치 形態는 第1期의 경우 대부분 결원아치였으나, 第2期 이후부터는 평아치형이 점차 증가하여, 第3期에는 평아치형으로 一般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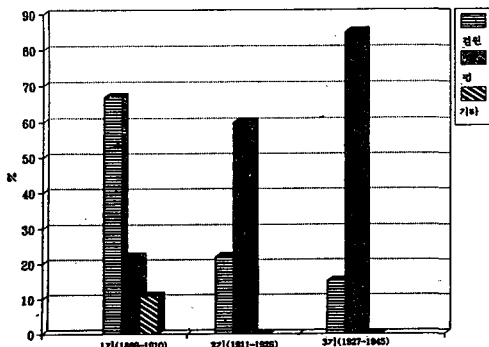


그림 IV-2 창아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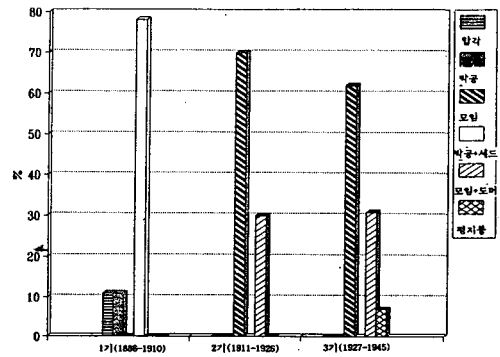


그림 IV-3 지붕형태

(3) 지붕 形態

住居建築의 지붕형태는 第1期에 개신교의 美國人 宣教師들이 현지 風土에의 適應이라는 그들의 선교이념에 따라 한식 기와지붕형을 채용했는데, 이는 박공형의 지붕면에 Shed창을 부가한 折衷型이었다.

지붕 形態의 時期別 變化를 보면, 第1期에는 박공+Shed형지붕이 대부분이었고 第2期부터는 모임지붕형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임지붕에 domer창을 부가한 형태 나타났으며 第3期 후반부터는 평지붕형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4) 外觀 類型

大邱地域의 住居建築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要因과 잡다한 經路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樣式(Style)으로 分類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住居의 外觀 構成要素의 形態의 特性을 참고하여 類型別로 分類하여 時期別 變化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住居建築의 類型은 韓·洋折衷型, Colonial·Bungalow風, Georgian풍, 日·洋折衷型, 日·洋複合型, 近代의 類型 등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이들 外觀 類型의 변화과정을 時期別로 보면 第1期에는 주로 韓·洋折衷型과 Colonial양식에 근원을 둔 Bungalow風이었고, 第2期부터는 Colonial型에 이어 Georgian型, 日·洋複合型, 日·洋折衷型 등이 주로 建築되었으며 第3期 후

시기 \ 유형	한·양 절충형	Colonial; Bungalow 형	Georgian 풍	일·양 절충형	일·양 복합형	근대적	계
1기(1886-1910)	45	44	-	11	-	-	100
2기(1911-1926)	-	42	17	17	24	-	100
3기(1927-1945)	-	25	19	25	19	12	100

표Ⅳ-6 각 시기별 외관 양식유형 분포율

반에는 近代의 外觀의 住宅이 일부 시도되기도 하였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開港이후 大邱地域에 세워졌던 近代 住居의 流入主體別·時期別 特性 및 變遷樣相을 고찰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時期別 流入樣相

大邱地域의 近代住居는 주로 歐美 宗教團體(천주교, 개신교), 日本人들에 의해 流入되었으며, 이들 流入主體들은 그들의 建築的 思考와 당시의 時代的 狀況에 따라 각기 다른 建築的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즉 第1期에는 歐美人 宣教師들의 韓·洋折衷型, Colonial樣式에 根源을 둔 Bungalow風에 이어 日本人들의 日·洋折衷型(木造擬洋風) 住居가 나타났고 第2期에는 歐美 宗教團體의 Colonial型和 Georgian 型的 住居와 더불어 日本人들의 日·洋複合型 住居가 建築되었다. 第3期에는 建築技術, 材料의 發達에 따라 日本人들의 聯立型住居(관사 및 병용주택)가 日·洋折衷型으로 지어졌다.

2. 流入主體別 特性

1) 歐美宗教團體의 住居는 全 時期에 걸쳐 붉은 벽돌조였다. 天主教는 선교초기 韓·洋折衷型的 住宅을 지었으나, 1900년에 들어와서 부터는

Georgian風의 西歐式 住宅을 모방하였고, 개신교는 초기부터 韓·洋折衷型과 더불어 colonial型에 根源을 둔 Bungalow風의 住居型을 채용하여 周圍 環境과의 調和를 꾀하였다.

2) 日本人들의 住居는 대부분 木造의 日·洋折衷型이다. 第2期 이후에는 日·洋複合型的 官舍와 간략화된 日·洋折衷型的 聯立型 住居가 많이 建築되었다.

3) 韓國人의 住居는 第3期에 2호 建築되었으며, 벽돌조 2층으로 近代의 外觀을 構成하고 있다.

3. 住居類型的 變遷

大邱地域 近代住居의 用途類型은 독립형 사택, 독립형 관사 및 병용주택, 연립형의 관사, 사택, 병용주택으로 變化되었고, 構造 및 材料는 歐美 宗教團體의 경우 全 時期에 걸쳐 붉은벽돌 조적조 2층으로 보편화되었다. 日本人들의 住居는 시멘트 몰탈마감의 목조, 목골조가 많았으며, 지붕재료는 슬레이트, 함석, 일식기와등으로 變化되었다.

平面形態는 대부분 長方型이었으나 第2期부터는 ㄱ자형, 부정형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平面形式은 홀형으로 보편화되었다. 外觀의 形態類型은 韓·洋折衷型和 Bungalow형, Georgian형, 日·洋複合型, 日·洋折衷型, 近代의 住居등으로 變遷되었으며, 外觀을 構成하는 重要 要素인 창문은 결원아치형에서 평아치형으로, 出入口는 porch型에서 canopy型으로, 지붕은 박공형, 모임형, slab형으로 各各 變化되었다.

참고문헌

- 1) 慶尙北道, 慶北大鑑, 1936.
- 2) 金 一鎭·鄭 鎭洙·尹 在雄, 大邱地域 近代 建築物 調査報告書,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10.
- 3) 金 晶東, 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研究, 홍익대, 博論, 1990.
- 4) 大邱 大敎區史編纂委員會, 大邱本堂 百年史, 1986.
- 5) 大邱府, 大邱府史 第 1, 2, 3編.
- 6) 大邱市, 大邱市史 第 1, 2, 3卷.
- 7) 大邱市, 슬기 맑은 意志의 都市, 1975.
- 8) 이 상근, 大邱 第一敎會 90年史, 1983.
- 9) 尹 在雄, 大邱地域 近代 住居建築에 관한 研究, 曉星女子大學校 論文輯, 1989.
- 10) 尹 在雄, 大邱地域 近代建築에 관한 研究, 嶺南大, 博論, 1991.
- 11) 鄭 淳在, 寫眞으로 보는 舊韓末, 每日觀光文化社, 1980.
- 12) 野村孝文, 朝鮮 住宅의 變遷의 概要, 朝鮮と建築, 1942.
- 13) 河井朝雄, 大邱의 物語, 1931.
- 14) 三輪如, 大邱一斑, 1911.
- 15) Alfred Easton Poor, Colonial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INC, N. Y. 1932.
- 16) Happy. A. Rhodes. AM. D. D,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s by sterian Church U. S. A.
- 17) N. Pevsner,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Pelican Book, 1975.

A Study on the Modern Domestic Architecture in Taegu Area after the End of the 19th Century

Yoon, Jae Woong

(Hyos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iguration of the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irty two houses which were located in Taegu province and constructed during the period from 1886 to 1945, were surveyed and analyzed about the characteristic and their transfiguration.

The modern domestic architecture of Taegu province had been constructed greatly by the missionaries and Japanes.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modern houses in Teagu province can be devided into three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policy, housing style and the method of construction.

The first period(1886-1910) wa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house. Most of the mission houses of that period were made with brick structure of korean-western style or colonial style.

In the second period(1911-1926), colonial, Japanese-western, Japanese housing style were co-exited in Teagu province.

During the third period(1927-1945) new method of construction using reinforced concrete and mortar was introduced, therefore the houses become row house(a two or three-family house) and much simpler.